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5월 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7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고난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권능으로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편 금 순 -

저는 충남 아산의 둔포라는 시골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전도하시므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여든네 살이니, 교회에 다닌 지가 어느덧 팔십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지난 시간이 실로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과 지위에 비하면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 재물과 같은 것들이 덧없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인생길에도 매우 기쁘고 좋은 일과 더불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은혜와진리교회 권사가 되어 오늘도 주님의 일을 행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영혼이 잘됨 같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양성전에서 20여년간 여성 성도들도 함께 하는 남성봉사연합회 심방부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병을 앓는 성도나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봉사를 하는 한편, 수요1부예배 성가대에서 봉사

하였습니다. 원래 저의 시대는 가족 중에 수녀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카톨릭 신앙을 따르는 집안이었고 남편 또한 일찍부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가장 큰 소원이 남편도 교회에 다니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모로 애쓰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저혈압 증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 아픔과 고난은 5년 후에 크고 놀라운 기쁨과 복으로 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도 교회에 나와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여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나이 예순한 살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뇌졸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돌보면서 남편의 병이 낫도록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기도한지 5년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완치가 되어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번에는 낙상 사고로 대퇴부가 골절되고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10년을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가족은 정든 안양을 떠나 낯설고 물신 김포신도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안양성전이 그리고 함께 하던 성가대원과 교우들이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전이든지 한결같이 자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또 친절한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김포성전에서도 계속해서 구역장과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성전과 다름없이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교회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투병중이던 남편이 2018년 7월에 천국에 갔습니다. 병석에서도 장로 직분을 갈망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7월말 주일예배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 기도를 주

로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였음에도 낫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기도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더는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오래 병고를 겪던 남편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홀로 된 저는 ‘그래,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충실하자’는 다짐을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지난 해 4월에 저를 가까이에서 돌보려는 외동딸 부부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 파주시 운정동의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사를 와서 보니 여기저기 온통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어서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없으면 쉽게 어디를 오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배려하여 일산성전 우리 교회에서 교구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지역마다 은혜와진리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전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밖에 나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습관이 되어 요즘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권을 한 달에 1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령한 지식을 쌓으며 영혼의 양식을 취하게 해주시고 저의 영혼과 삶을 더욱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목사님의 강해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의 장면들이 마치 어제 제가 직접 본 장면처럼 여겨지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크고 깊어진 것을 느낍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읊을 생각하며 뒤에 다가올 복을 기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요나를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지켜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 주시며 저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인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8단원 : 다시 오실 예수님) (제47과) '새 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 본문 : 요한계시록 21:1-8(참고: 계 21장, 22장)
- 요절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 찬송 : 402장(새찬송가 360장), 223장(새찬송가 236장)

그리스도와 성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지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은 창세 이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백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계 20:11).

이 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모든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지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많은 사람을 괴롭혔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계 19:20)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계 20:10), 그리고 인생을 괴롭혀 왔던 사망과 음부의 세력도 불못에 내어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1.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악한 세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성도가 고통을 받는 곳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단의 세력이 전혀 없으므로 기쁨과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회복된 하늘과 땅에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중심무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2.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이며,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던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성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하였습니다(계 21:11). 이 영광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입니다(출 40:34).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의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된 ‘생명수의 강’(계 22:1)이 흐르며, 이 강의 양 언덕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힐 것이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죄로 인하여 상한 만국 백성들을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사방에 3개씩 있어 모두 열 두 문이며 천국의 진리를 표현하는 진주(마 7:7, 13:45-46)로 만들어졌고 12천사가 그 문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가로지르는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성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완전한 크기가 된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 이렇게 열 두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건축재료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장차 그곳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3.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삶의 모습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천국 자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성전이므로 예배를 드리려고 따로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계 21:22). 따라서 성도는 천국에서 매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요 4:23~24).

둘째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燈)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던 해와 달이 전혀 필요 없는 곳입니다(계 21:23). 그곳에는 마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차고 넘쳐서 해나 달의 영광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화가 아무리 태양처럼 빛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죽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근이나 도적이거나 강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맹수가 없으므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굶주림이나 추위나 더위도 없으며, 질병과 이별과 죽음이 없으므로 슬퍼할 일이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일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이 없는 천국은 항상 밝고 열려 있는 세계이므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고통과 불신앙과 죽음을 상징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찬 곳입니다(계 21:25).

넷째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이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살후 2:9~10).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찬 천국의 삶은 그야말로 빛 된 삶이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천국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엡 5:8~9).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다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화로움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허탄하고 망령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울진, 전주호자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